

영재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액션러닝 적용방안

추 성 경

동아대학교

본 연구는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영재부모를 대상으로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영재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액션러닝의 적용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결론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양육에 관련된 고민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나, 영재를 직접적으로 양육하는 영재부모를 위한 교육은 미흡하므로 영재부모들을 대상으로 영재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영재부모에게 있어 역량강화는 부모가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영재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액션러닝의 적용방안은 영재부모들이 함께 실재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주제어: 영재부모, 양육스트레스, 역량강화, 액션러닝

I. 서 론

우리 사회에서의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영재학교가 개교를 함에 따라 영재교육이 공교육의 차원에서 실시되는 전기를 맞이하였고, 2013년 기준으로 영재교육 대상자는 121,421명으로, 이는 2003년 19,974명에서 6.1배 증가한 것이며, 전국 초·중등학생 대비 영재교육 대상자 비율은 2003년 0.25%에서 2013년 1.87%로 7.5배 증가하였으며, 현재, 영재교육기관은 3,011개로, 2003년 400개에서 7.5배 증가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2013). 이처럼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이들을 교육하는 영재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많은 고민과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영재부모들은 자녀의 영재성으로 인한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욕구와 필요에 대해 지도역량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으며(김성원, 최성원, 2002; 김정휘, 2001; 김현희, 2004; Horsach, Mueller, Spicher, 2006), 또한 어떤 부모들은 자녀의 영재성을 과신하고, 또한 어떤 부모는 영재자녀를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전경원, 1996; Rohmann & Rohmann, 2005; Sidney, 2004; Wittmann & Holling, 2004). 따라서 영재부모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줌으로써 영재부모의 고민을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다.

생애 초기에 부모의 역할이 영재아동의 일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영재 부모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나 훈련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일회성 특강형식의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영재부모들의 실제적 요구와 고민들을 반영한 연구(민보경, 2010; 이희영, 안삼태, 최태진, 2003)는 미흡하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김종선, 2008; 이지연, 한기순, 2012)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자녀 교육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영재부모들은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태진미(2009)는 선행연구들이 영재성 발현과 성취를 위해 부모 조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모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보고함으로써 영재부모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역량이라는 것은 영재부모가 자녀 양육에 있어 능력을 가지는 것 또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며(Parsons, 1991), 역량강화(empowerment)란 힘을 개발하여, 힘을 획득하고, 축적하는 과정(Parsons, 1999)으로 사용되고 있다. Cattaneo와 Chapman(2006)은 무력감을 느끼는 대상자에게 힘과 용기를 제공함으로써 주변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영재부모에게 있어 역량강화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한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부모들의 자녀교육의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힘을 의미한다.

현재 부모의 역량강화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양육에 관한 기술, 태도, 방법 등을 직접 가르침으로써 부모의 양육능력을 증진시키는 부모교육 프로그램(김향은, 정옥분, 1999; 김현주, 김은영, 황민주, 이승미, 2008)과 어머니 자신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여가활동 등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와 같은 정서적 지원연구(명신영, 1999; 조미숙, 2009),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효과연구(이은경, 2013; 정계숙, 김정혜, 김미정, 2003)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영재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영재부모에 대한 이해와 현재의 경험, 가치관 및 태도를 변화시키면서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액션러닝이 하나의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은 학교혁신의 새로운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90년대부터 해외 선진 기업들을 중심으로 조직의 당면 문제 해결, 국제적 감각을 지닌 리더 육성, 조직의 경쟁 우위 확보 및 학습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봉현철, 2006). 특히, 액션러닝은 실제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특성으로 인해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현직교사를 대상(허영주, 2007; Aubusson, Ewing, Hoban, 2009)으로 하거나,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박수홍 외, 2013; 성수현, 2007)의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Marquardt(2004)는 액션러닝은 ‘소규모로 구성된 한 집단이 기업에서 직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며, 그 학습을 통해 각 집단 구성원 및 조직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자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액션러닝은 교육 참가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각자 자신의 과제, 또는 팀 전체의 과제를 러닝 코치와 함께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프로세스를 거친다(봉현철, 2006). 장경원과 고수일(2013)은 액션러닝이 학습자를 변화시키고, 수업을 변화시켜서 역량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한기순과 이영미(2010)도 영재아 지도를 위해서는 이론적 접근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듣고 해결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교육적 요구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육현장에서 학습자들이 참여하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영재부모를 위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재부모와 관련하여 액션러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일반 부모들을 대상으로 액션러닝과 관련된 연구에는 액션러닝을 활용한 학교컨설팅 사례연구(장경원, 2011), 초등학생 일기쓰기 지도를 위한 액션러닝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성수현, 2007), 김상웅 외(2010)에 의한 부산교육발전과제 연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PT(Parent-Teacher) Action Learning CoP 활동을 통한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영재부모를 대상으로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영재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액션러닝의 적용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영재부모와 역량강화

여기에서는 영재부모에게 필요한 역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먼저, 영재부모에 대한 이해를 영재부모의 교육적 요구와 영재부모를 위한 교육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영재부모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영재부모에 대한 이해

가. 영재부모의 교육적 요구

영재부모들은 어떤 점을 고민하고 어려워하는가? 영재들은 일반학생에 비해 다른 심리적 특성과 교육적 요구로 인해 자녀양육, 진로문제, 가정환경지원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이신동, 이정규, 박춘성, 2009). 또한 영재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 입학할 경우 자녀의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들과 가치관이나 교육목표가 서로 다름을 우려하고 있다(Robinson, Roedell, Jackson, 1979). 그러므로 영재부모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의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영재교육은 대부분 영재들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교육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영재부모를 위한 교육은 미흡하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의 영재들은 유아기나 초등학교 시기에는 관심을 받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성장이후에는 대부분의 영재들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개인과 국가적 손실이 매우 크다. 따라서 영재들이 자신의 타고난 잠재력을 신장시키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국가가 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영재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Silverman(1997)은 30년간에 걸친 영재부모와의 상담경험을 통해 영재 부모가 호소하는 어려움을 12개 항목으로 구체화하였는데, 이를 열거하면 영재아와 일반아의 발달상의 차이점, 아이의 장·단점의 평가문제, 가정에서의 적절한 자극제공, 적절한 학교선택, 학교 관계자로부터 조력획득, 활용가능한 자원에 관한 정보획득, 저성취와 동기부족 문제의 대처, 아이가 보이는 완벽주의, 높은 민감성, 내향성, 우울증의 대처, 또래 관계 향상을 위한 조력제공, 영재자녀로 인해 야기되는 가족구성원들 간의 긴장, 의존적 자녀의 독립성 향상, 영재성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Braggett, Ashman, Noble(1983)도 자녀가 영재라고 믿고 있는 부모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크게 3가지 영역 즉, 지식과 정보 부족, 학교와 관련된 문제, 심화활동과 관련자료 부족 등에서 문제를 겪고 있으며, 교육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이희영, 안삼태, 최태진(2003)이 영재부모들의 고민영역으로 영재판별요인, 개인특성요인(완벽주의, 주의산만, 과제집착력 부족, 개인성향, 적응스트레스, 사고몰입), 학교요인(교육과정 및 방법에 대한 불만족, 교사의 이해부족, 교육관계 부적응), 전문교육기관요인(영재 교육기관 및 설비나 프로그램 미비), 사회인식요인(영재 및 영재부모에 대한 편견), 가정교육 요인(진로지도 문제, 부모의 배경부족, 부모의 교육적 지지, 정보 부족) 등을 6개 영역으로 살펴본 결과 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적 지지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영재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한기순과 이영미(2012)는 개념도 방법을 활용하여 영재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실증적으로 탐색한 결과, 영재부모로서의 부담과 갈등 범주가 가장 높은 평균을 보여 이 범주와 관련한 양육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시절에서 영재과정을 마친 후, 다음 단계에서도 영재로 선발되기 위해 뒷받침을 잘해 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지연과 한기순(2012)은 영재아 어머니가 지각하는 성공적인 영재교육의 요건으로 지속적인 부모교육과 영재부모들 간의 교류가 있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에 태진미(2009)는 많은 선행 연구들이 영재성 발현과 성취를 위해 부모 조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모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므로, 영재부모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탐색하여 부모 지원의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총체적인 영재부모지원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영재부모들의 교육적 요구와 기대를 인식하고, 영재부모를 위해 영재아동에 대한 관련지식과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자녀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시켜줄 수 있는 영재부모의 역량강화

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 영재부모를 위한 교육방법

이상의 연구에서 보면 영재교육에서는 영재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영재부모를 위한 교육방법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민보경(2010)에 의하면 영재부모를 위한 교육방법은 특강형식의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영재부모들의 실제적 요구와 고민들을 반영한 프로그램은 거의 부재한 상황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김종선(2008)의 연구에서도 영재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영재교육 진흥법에서 설명하는 영재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대부분의 부모들이 모르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부모들이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자녀의 영재성을 성장시키고 발달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으며 영재부모의 부모교육은 학문의 분야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부모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한기순(2010)의 연구에서도 일회성의 강연위주를 지양하고,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은 실제 영재자녀에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을 원하고 있음이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교육 주제를 선정할 때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해야 하며, 다양한 교육형태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온라인이나 토론식 수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영재교육에서는 영재부모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적으며, 대부분 영재교육에 대한 부모의 일반적인 인식이나 만족도를 묻는 조사에 치중하고 있으며, 비지속성과 비체계적인 방법과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녀의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화함으로 그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자신의 강점을 찾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원리를 이용하여 부모의 역량을 키워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영재부모들을 함께 모아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영재부모와 역량강화에 대한 이해

가. 역량강화의 개념과 필요성

역량(competence)이란 개념은 1950년대~60년대 사회 경제적인 갈등기에서부터 비롯되어 1970년대의 사회변화시기에 제2명됨으로써 그 개념이 확립되었다(이은경, 2013). 1980년대에 들어 역량이란 용어가 일반적인 단어로 정착되면서, 그 이후로 간호학, 심리학, 교육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Lincoln, Travers, Acker, Wilkinson, 2002). Vincent(1996)에 의하면 역량의 개념은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사용되었다. 그의 '역량'에 대한 세 가지 의미는 사회의 계층 간의 갈등해소 및 교육기관 운영 권한의 분산, 교육서비스의 소비자로서 갖는 학부모의 선택권 및 참여권, 학부모 집단의 형성과 자녀교육을 위한 교사의 협력에 관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된 학부모의 권한을 들 수 있다.

역량강화(empowerment)의 개념은 개인 또는 가족·지역사회와 같은 집단이 정치·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원에서 강점을 향상시키고,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선택하는 환경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학습자가 처한 환경 안에서 자원과 강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Freire(1973)에 의하면 역량강화는 개인의 역량강화와 대인적 역량강화로 구분하고 있다. 개인의 역량강화(individual empowerment)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새로운 인식을 획득하고, 개인을 둘러싼 관계들의 변화를 모색하는 단계를 의미하며, 대인적 역량강화(social empowerment)는 더 높은 단계로서 의식의 자각을 통해서 공동체 활성화, 조직화에 나서고, 침묵의 문화를 깨고 사회적 행동에 참여하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이은미, 2006).

Parsons(1999)는 역량강화를 힘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힘을 개발하여 힘을 획득하고 축적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결정을 촉진하고 증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Staples(1990)는 Parsons(1999)는 역량강화를 과정적 개념임과 동시에 힘을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게 된 결과적 산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Miley, O'Melia, Du Boris(2004)는 역량강화란 인간은 누구나 강점이 있으며 각 구성원들이 각자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성장과 아울러 행동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집단을 떠나 자신의 환경에 돌아와서도 잘 적응하고 통합하는 것이라 하였다(김보영, 2011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역량강화의 개념은 첫째, 광범위한 단계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연관된 집단역량이다. 이러한 조직적 역량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대되는 행동을 향상시키는 과정과 연관된다. 둘째, 개인적 단계(the individual level)에 대한 분석으로 개인의 권리와 책임, 법률 지식 등이 포함된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 역량 등이다. 이러한 능력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 통제소재(locus of control), 자존감(self-esteem) 등의 통합적 신념이다. 셋째,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능동적 행동을 통해 개인의 환경에 통제력을 발휘하는 역량에 관한 것이다(Shultz, Israed, Zimmerman, Checkoway, 1995). 이처럼 역량강화는 개인적 특성, 대인상호관계,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서 비롯되는데, 이러한 3차원이 잘 기능할수록 각 개인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은 더욱 향상될 수 있다(이은경, 2013).

이상에서 보면 역량강화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힘 또는 권한의 차원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역량강화는 영재부모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영재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의 발달적 특성과 요구를 개인과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지원함으로써 자녀가 발달의 모든 영역에서 유능한 존재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나. 영재부모와 역량강화

영재부모를 위한 역량강화는 부모가 능력을 가진 것,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Parsons, 1991), 이는 영재부모들의 고민과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부모로서 자녀양육에 대한 유능감을 가지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재부모를 위한 부모역량강화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어용숙과 김문정(2009)은 체제옹호, 지식, 유능감, 자기효능감으로 곽소현(2000)은 자녀에 대한 이해, 자녀와의 의사소통, 가족규칙 찾기 등이 도움

된다고 밝혔다. Kane, Wood, Barlow(2007)는 부모역할과 관련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자신감, 지식과 기술의 획득, 문제해결능력 증진, 자녀의 문제행동 이해, 부모교육에 참여한 집단의 구성원의 지지 및 배우자의 지지를 역량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영재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부모에게 필요한 역량강화의 차원을 Miley 외(1995)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이은경, 2013에서 재인용).

첫째, 개인적 차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이는 개인 스스로에 대한 역량감, 지배감, 강점, 변화능력 등을 의미한다. Rappaport(1985)는 개인적 차원의 역량강화를 인성, 인지, 동기에서의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이라고 보며, 그 자체가 자기가치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의 수준, 자신을 둘러싼 외부세계와 차별화할 수 있는 수준, 보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는 수준까지도 나타낸다고 한다. 둘째, 대인관계적 차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이다. 즉 대인관계에서 어느 일방에 의해 주거나 혹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주고받는 평형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인관계 차원에서 역량강화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구조적 차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이는 사회구조와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힘을 얻기도 하지만,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같은 사회구조를 바꿈으로써 보다 큰 힘을 얻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사회적 수준에서의 자원의 창출은 그 사회의 모든 개인에게 힘을 부여한다.

이처럼 영재부모를 위한 역량강화 목표의 목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양육지식, 의사소통, 갈등상황에서의 문제해결능력 및 부모양육 효능감, 부모양육태도의 변화 등이 영재부모를 위한 역량강화의 요인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부모의 역량강화와 관련된 연구는 한 부모, 다문화, 장애유아, 일반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강기정, 2009; 강혜원, 박지연, 2011; 이은경, 2013; 최예경, 2012).

이상에서 보면 부모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들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재부모들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역량강화는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를 통해 부모교육의 방법이 논의되어 왔으나 영재부모의 교육 역량강화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전환적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에 액션러닝과 역량강화의 연계는 영재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에 새로운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III. 영재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액션러닝

앞에서 보듯이 영재부모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양육지식, 의사소통, 갈등상황에서의 문제해결능력 및 부모양육 효능감, 부모양육태도의 변화 등의 역량요인이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영재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해 먼저 액션러닝에 대한 개념, 필요성, 원리와 기대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영재부모를 위한 액션러닝 수업방안의 적합성을 고찰해보

고자 한다.

1. 액션러닝에 대한 이해

가. 액션러닝의 개념 및 필요성

최근 학습자 중심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모형 또는 이론이 제안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문제중심 학습, 목표중심 시나리오, 인지적 도제, 상황학습, 액션러닝 등을 들 수 있다. 이 모형의 공통점은 학습자들이 실제적 맥락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특히 액션러닝은 실제적 맥락이 아니라 실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른 모형들과 구별된다.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은 영국의 Revans(1978)가 국가석탄위원회 초대 교육훈련 담당관으로 광부들을 대상으로 집단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30%이상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병원, 정부, 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액션러닝을 적용한 프로젝트가 실시되어 그 성과를 보이고 있다(장경원, 고수일, 2013). Revans(1980)는 액션러닝이란 문제상황에서 관찰 가능한 행동을 향상시키는 의도적인 변화를 얻기 위해 현실적으로 복잡한 문제에 책임감을 갖고 관여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지는 지적·감정적·신체적 발달수단이라고 정의하였다. McGill과 Beaty(1995)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동료구성원의 지원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학습과 성찰의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Marquardt(2004)는 “소규모로 구성된 한 집단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며, 그 학습을 통해 각 그룹 구성원은 물론 조직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자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Burke(1997)는 “조직 내 시시각각 발생하는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개인학습의 원리를 동원하여 문제해결을 보다 효과적으로, 협동작업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조직의 학습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 즉 학습을 학습하는 것(learning about learning)”으로 설명하고 있다.

봉현철(2006)은 액션러닝이란 교육 참가자들이 학습팀을 구성하여 과제를 제시하는 또는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팀 또는 개별로 러닝코치(Learning coach)와 함께 정해진 시점까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지식습득, 질문, 피드백, 성찰을 통해 내용측면과 과정측면을 학습하는 프로세스라고 정의한다. 이상의 정의들을 통하여 액션러닝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개인과 팀, 그리고 외부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천대운(2009)은 액션러닝의 필요성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성장과 번영의 수단이다.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는 항상, 과거, 현재, 미래 현상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접근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둘째, 문제해결의 수단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한다. 셋째, 변혁적 학습수단이다. 변혁적 학습이란 문화변화, 사고변화, 행동변화를 유발하는 학습으로 이러한 변화는 개인과 조직의 학습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넷째, 경쟁력 증진의 수단이다. 글로벌 환경에 경쟁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원들을 관리하는 과

정을 혁신해야 한다. 이러한 저항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액션러닝이 필요하다. 또한 액션러닝을 통해 기대되는 학습단계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 액션러닝 학습단계

| 단계 | 학습 내용 |
|----------|---------------------|
| 습득 | 대상으로 문제에 대한 정보습득 |
| 해석 | 습득된 정보를 분석, 해석 |
| 대안개발과 선택 | 다양한 해결대안 개발과 우선순위선택 |
| 일반화 | 해당문제 및 유사문제에 적용 |
| 응용 | 현장중심적 문제해결능력 향상 |

출처: 천대윤, 2009, p. 215

이처럼 액션러닝은 교육참가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팀워크를 바탕으로 각자 또는 집단이 실제과제를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하는 과정에 정보습득, 정보의 해석, 대안개발과 우선순위의 선택 그리고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과제의 내용과 관련된 지식과 과제해결 프로세스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나. 액션러닝의 원리와 구성요소

액션러닝은 실천학습, 행동학습, 또는 참여식 수업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액션러닝의 원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장경원, 고수일, 2013). 첫째, 액션러닝은 실천행위가 존재한다. 즉, 학습은 가만히 앉아 지식을 머릿속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어온 지식과 정보를 몸으로 실천하며 행할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액션러닝에서 실천행위는 학습이 일어나기 위한 전제조건일 수 있다. 둘째, 액션러닝은 개인 또는 팀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행위가 필요하다. 이는 실제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 또는 팀원들의 적극성과 참여도, 책임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액션러닝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선정기준이 필요하다. 문제해결과정에서 학습을 위한 유의미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전적이고 성취감이 크고, 적당히 난이도 있어야 한다. 장경원과 고수일(2013)은 중요성, 비구조성, 실제성, 구체적인 결과물, 학습의 기회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액션러닝은 학습의 과정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습득된 정보를 해석하면서 다양한 해결대안을 제시하여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현장중심적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액션러닝을 운영한 조직들이 성공한 이유는 액션러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결합되고 융합되어 시너지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성공을 위한 액션러닝의 주요 구성요소는 연구관점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천대윤, 2009). 다음은 주요 학자들의 액션러닝의 구성요소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 표 2 > 액션러닝의 구성요소

| 구분 | 구성요소 |
|-----------------|---|
| Marquardt(2004) | • 문제 • 집단 • 질문 • 실천 • 학습 • 학습코치 |
| Spence(1998) | • 문제 • 동아리 • 의뢰인 • 과정 • 동아리 지도교수 |
| 김상웅 외(2010) | • 실제적 문제 • 실행을 통한 학습 • 연동성 • 전체성 • 학습교구를 통한 학습 • 팀학습 • 가치부가성 |
| 조경호(2005) | • 학습팀 • 내·외부 주제전문가 • 스폰서 • Facilitator • Staff |
| 천대윤(2005) | • 문제 • 소집단 • 질문 • 성찰 • 실행 • 학습 • 촉진자 • 의뢰인 • 후원자 |

이상에서 보면 액션러닝은 개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이므로 효과적인 액션러닝을 위해서는 위의 학자들이 제시한 구성요소들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가능하므로 구성원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2. 영재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액션러닝 수업

앞에서 보듯이 영재부모들은 일반부모보다 많은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영재부모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액션러닝의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액션러닝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성과와 직결되는 이슈 혹은 과제를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하고, 이를 통해 개인과 팀의 역량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행동 지향적 학습 기법으로 영재부모들의 역량강화를 기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 봉현철(2006)은 액션러닝은 교육 참가자들이 학교교육과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쌓은 지식을 실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실제 적용해봄으로써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지식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하였다.

액션러닝을 활용한 수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영재부모들은 처음에는 액션러닝 수업이 생소하여 다소 부담스러워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실제적 문제를 다루고 직접 가정에서 적용해 보게 함으로써 자녀교육에 대한 자신감과 역할을 증대시킬 것이다. 둘째, 자신이 학습과정을 주관함으로써 자신에게 의미있는 지식을 구성하고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른 영재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고민을 나눔으로써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실질적인 의견공유가 될 것이다. 넷째, 팀활동을 통해 서로 돕고 격려하며 집단의 결속력을 높이는 수업방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팀활동을 하면서 학습자들이 동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여섯째, 액션러닝의 과정을 통해 나온 성과는 기존의 일방적인 지식전달 방식과는 달리 비전문가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전문가 못지않게 만족할 만한 학습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가정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영재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 부모들의 영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영재교육기관과 가정의 연계성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영재부모를 대상으로 액션러닝을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일반부모를 대상으

로 액션러닝을 적용한 연구에서 성수현(2007)은 초등학생 일기쓰기 지도를 위한 액션러닝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를 통해 가정에서 자녀의 일기쓰기라는 특정상황을 기반으로 한 실제적 문제(authentic problem)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녀의 일기쓰기를 향상시켰고, 액션플랜을 가정에서 직접 적용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흥미도가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이후 부산교육발전과제 연구프로젝트 최종보고서(2010)에 의하면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확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부모와 교사 커뮤니티(Parent-Teacher Action Learning CoP) 구축 및 현장 적용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질 향상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에 기여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김상웅 외, 2010). 이러한 연구결과는 액션러닝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액션러닝을 활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은 영재부모들의 교육적 요구와 역량강화에 적합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IV. 영재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액션러닝 적용방안

이처럼 액션러닝은 실시간 학습경험으로 인해 개인과 집단의 역량을 동시에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문제를 바탕으로 정해진 시점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성찰과 평가의 과정을 통해 학습이 되도록 지원하는 교육방식으로 영재부모들의 고민과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자녀양육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영재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액션러닝의 적용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영재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액션러닝의 진행절차

가. 참여기관 및 팀 선정

영재부모를 위한 액션러닝 적용방안을 위해서는 먼저 부산시 교육청,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영재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액션러닝을 활용한 영재부모를 위한 역량강화 수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선정한다.

나. 액션러닝 코치의 필요성

다음으로 액션러닝 코치를 선정해야 한다. 액션러닝 코치는 개인과 조직 전체를 액션러닝에 적응시키고 준비시킬 책임이 있으므로 액션러닝에 관련된 연수를 이수한 사람으로 영재부모들의 어려움과 고민에 함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한다.

다. 연구절차

1) 연구기간과 연구일정

본 연구의 시작은 단기간은 방학을 이용하거나 장기간은 한 학기 동안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습성도가 높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음부터 세밀한 운영계획을 세우는 것이 향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2) 연구진행

액션러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약 2~3개월간 9회의 모임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액션러닝 프로그램을 통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문제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질문하며 지원받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주도적으로 배워나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진행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첫째, 영재교육 전문가를 포함한 교육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적합한 교육대상자와 부모들 대상으로 꼭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학습과제)를 정한다. 둘째, 이들 참가자들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액션러닝의 개념과 진행절차에 대해 소개받고, 팀을 구성하여 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부여받게 된다. 처음 2-3주 동안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Set Meeting이라고 불리는 팀활동을 통하여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보고서를 작성하여 참여한 영재부모들에게 그들의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영재부모들에게 보고하고 그 방안의 실행여부를 결정한다. 보고가 끝난 후에 영재부모들은 그들이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정리하는 체계적인 성찰과정을 끝으로 액션러닝을 마치게 된다.

2. 영재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액션러닝 적용방안

본 연구는 영재부모들에게 액션러닝수업의 적용을 통하여 영재부모들의 영재아동의 학습과 생활을 도와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재부모를 위한 액션러닝수업의 적용방안을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영재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액션러닝 적용방안

| | | |
|-------|---------------|--|
| 교육대상 | 영재부모 |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각 교육청 영재교육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영재학교·과학교에 재학 중인 영재부모 중 액션러닝을 통한 역량강화에 관심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팀을 구성한다. |
| 교육시기 | 학기초, 방학 | 영재부모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기 초나 방학을 활용한다. |
| 교육시간 | 9회기 (18시간) | ① 사전교육 - 2회기(4시간) ② 핵심프로세스 참가-7회기(14시간) |
| 교육목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지니고 있는 영재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다. • 영재성 발현에 도움이 되는 양육태도와 가정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영재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
| 교육내용 | | 영재부모들의 공통된 고민, 어려움, 양육스트레스와 기타 당면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
| 회기 | 핵심 프로세스 | 세부절차 |
| 1-2회기 | 사전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래포 형성을 형성한다. • 액션러닝의 전체운영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 액션러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액션러닝의 과정과 기법을 PPT나 동영상으로 보여준다. |

| | | |
|-----|-------------------|--|
| 3회기 | 액션러닝 팀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명, 구호, 규칙을 정하여 전체 학습자 앞에서 발표한다. • 팀규칙은 앞으로의 활동수행에 대한 서로의 약속이며 서로 격려하며 활발한 참여를 유도한다. |
| 4회기 | 문제 상황 제시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원들이 관심있는 주변의 실제 문제를 발굴한다. • 문제선정시 문제개발 점검지를 활용하여 적절성을 따져본다. |
| 5회기 | 문제인식과 문제명료화 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자료에서 부모가 인식해야 할 문제를 확인한다. • 문제를 명료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
| 6회기 | 해결책 도출과 우선순위 결정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전략을 다각적인 아이디어로 도출해 본다(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기법을 활용). • 선정된 해결안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 7회기 | 액션플랜 작성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션플랜을 작성하면서 필요한 것과 유의해야 할 것을 팀원들과 공유하기도 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문제해결안을 실제로 적용하도록 한다(우선순위 템플릿을 사용). |
| 8회기 | 현장 적용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안을 현장에서 직접 실천한다. • 현장적용 중 영상이나 사진 또는 증빙자료들을 첨부해 두면 실행하기에 대한 효과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 9회기 | 성찰 및 평가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 이후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팀별로 팀구성을 통한 문제 발굴에서부터 실행까지 일련의 과정을 발표하며, 새로 알게 된 사실, 느낀 점, 실천해야 할 점 등의 성찰과 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

위의 <표 3>에서 보면 액션러닝에 대한 사전교육으로 강의중심, 교사중심의 교육에 길들여 있는 학습자들에게 액션러닝의 기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간을 설정하였다. 사전교육은 2회로 나누어서 강의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액션러닝의 진행흐름을 PPT나 동영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해를 돕고, 3회기부터 9회기까지의 액션러닝의 교육단계를 설명한다. 3회기에서는 액션러닝의 본시과정으로 하나의 실제적 문제에서 출발하며 팀 토론을 통해 문제인식하는 단계이다. 이때 영재부모들은 자신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고민 등을 서로 공유하면서 문제를 탐색한다. 4회기에서는 도출된 문제를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문제를 명료화한다. 5회기에서는 가능한 해결책 도출하기 위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가능한 해결책을 브레인스토밍이나 브레인라이팅 기법을 사용하여 제시한다. 6회기에서는 우선순위 템플릿을 사용하여 중요성,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의 관점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7회기에서는 현장 적용을 위한 액션 플랜을 템플릿에 작성한 후 팀 구성원들이 공유한다. 8회기는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적용을 실행한다. 9회기에서는 현재까지의 수행과정을 통해 개인 또는 팀별로 성찰 저널을 작성한 후, 토론 시간을 가짐으로써 액션러닝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영재부모를 대상으로 실

제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영재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액션러닝의 적용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부모들은 영재들이 심리적 특성과 교육적 요구가 서로 달라 양육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재교육 연구에서 영재부모를 그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적으며, 영재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도 일반적인 인식이나 만족도를 묻는 조사에 치중하고 있고, 영재부모들이 경험하는 문제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영재부모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연구가 시급하며, 체계적인 영재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을 마련하여 자녀의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화하고 부모 자신의 강점을 찾아 서로 긍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영재부모와 관련하여 역량강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영재부모의 역할을 부모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영재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나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거나 자료탐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재부모들에게 자녀를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에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셋째, 영재부모를 위한 교육은 영재부모의 자녀교육에 역량강화, 교육력 향상 측면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영재부모를 위한 교육방안이 논의 되어 왔으나 교육력 향상 측면에서 새로운 전환적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특히 액션러닝을 통해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과 실천을 함께 하여 지금까지 강의, 설문지조사 등의 부분적 활동에만 머물러 있던 영재부모들에게 역량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액션러닝수업의 적용을 통해서 영재부모들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액션러닝에서 제기된 문제와 해결책을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영재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액션러닝의 수업방안은 행동학습으로 조용히 앉아 지식을 머릿속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지식과 정보를 몸으로 실천하는 학습으로 시대적 변화에 적합하며 동시에 영재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액션러닝 수업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인재개발 연구들이었고, 영재교육기관에서 이를 적용하고자 진행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재교육 기관에서 액션러닝 수업이 진행된다면 영재부모들에게는 자녀양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고, 영재자녀들에게 적합한 교육내용과 방법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수행될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실제적인 적용을 통해 수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액션러닝이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이끌어 줄 러닝코치의 양성과 영재교육기관의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분기

별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액션러닝수업을 진행해야 하며 마지막 활동인 성찰하기에서는 부모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절차의 단순화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넷째, 지식정보화사회에 맞추어 온라인·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강기정 (2009). 다문화가족 모(母)의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부모코칭 경험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3), 111-125.
- 강혜원, 박지연 (2011).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장애유아 부모의 양육 효능감과 부모-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1), 1-25.
- 곽소현 (2000). **청소년 이해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가족 치료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김보영 (2011). **결혼이민여성의 부모역량강화에 관한 실행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김상웅, 정주영, 조영기, 진옥돌, 류남애, 지은경 (2010). **PT(Parent-Teacher) Action Learning CoP 활동을 통한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부산교육발전과제 연구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 김성원, 최성연 (2002). 영재아의 부모특성이 영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2(3), 671-681.
- 김정휘 (2001). **영재성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가족의 역할**. 서울: 교육과학사.
- 김종선 (2007). **영재교육에 대한 영재부모들의 인식 및 요구조사**.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 김향은, 정옥분 (1999).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프로그램이 어머니와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20(4), 179-194.
- 김현주, 김은영, 황인주, 이승미 (2008). 자녀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영역별 활동집 개발을 위한 요구도 조사. **육아지원연구**, 3(2), 177-192.
- 김현희 (2004). 부모교육 운영에 관한 초등 영재아 부모의 요구분석. **문화콘텐츠연구**, 9(2), 99-122.
- 명신영 (1999). **집단정신치료에 따른 어머니의 가족지각, 부모효능감, 양육스트레스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민보경 (2010). **중학교 과학영재아 부모들의 요구에 기초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수홍, 정계숙, 유미숙, 차지량, 홍광표 (2013).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액션러닝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육문제연구**, 31(2), 157-178.
- 봉현철 (2006). **액션러닝 워크북**. 서울: 다산서고.

- 성수현 (2007). **초등학생 일기쓰기 지도를 위한 액션러닝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어용숙, 김문정 (2009). 양육스트레스와 임파워먼트가 장애아동 주 양육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15(4), 409-416.
- 이신동, 이정규, 박춘성 (2009). **최신영재교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 이은경 (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이은미 (2006). **여성지체장애인의 직업활동을 통한 역량강화 경험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지연, 한기순 (2012). 영재아 어머니가 지각하는 성공적인 영재교육의 요건: 개념도 분석을 활용하여. **영재와 영재교육**, 11(2), 171-192.
- 이희영, 안삼태, 최태진 (2003). 영재아 부모들의 고민 유형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15(2), 193-205.
- 장경원 (2011). 대학교육을 위한 Action Learning. 프로그램 설계모형 개발연구. **교육공학연구**, 27(3), 475-505.
- 장경원, 고수일 (2013). **액션러닝으로 수업하기**. 서울: 학지사.
- 전경원 (1996). **학대받는 영재아들**. 서울: 창지사
- 정계숙, 김정혜, 김미정 (2003).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양육스트레스 변화연구. **영유아보육연구**, 9, 117-140.
- 조경호 (2005). 공무원 교육에의 Action Learning 적용방안 연구.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3-54.
- 조미숙 (2009). 역량강화 집단사회사업이 한 부모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임상사회사업연구**, 6(3), 125-140.
- 천대운 (2005).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Action Learning 모형 탐색.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457-484.
- 천대운 (2009). **현장중심 액션러닝 변화혁신 리더쉽**. 서울: 북코리아.
- 최애경 (2012).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경험한 장애유아 부모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3), 263-282.
- 태진미 (2009). 영재부모 지원의 새로운 접근. **영재교육연구**, 19(2), 303-332.
- 한국교육개발원 (2013).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통계자료.
- 한기순 (2010). **가정에서의 창의적 환경 조성을 위한 영재학부모 교육방안 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보고서.
- 한기순, 이영미 (2010). 영재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 분석: 개념도 기법을 활용하여. **영재교육연구**, 22(4), 893-916.
- 허영주 (2007). 현직교사교육프로그램에서의 실천학습(action learning)의 도입 가능성과 한계 분석. **교육과정연구**, 25(4), 207-228.

- Aubusson, P., Ewing, R., & Hoban, G. (2009). *Action Learning in Schools: Reframing teachers' professional learning and development*. Abingdon, UK: Routledge.
- Braggett, E. J., Ashman, A., & Noble, J. (1983). The expressed needs of parents of gifted children. *Gifted Education International*, 1, 80-84.
- Burke, W. (1997). What Human Resource Practitioners Need to Know for the Twenty-first Century. *Human Resource Management, Spring*, 71-79.
- Cattaneo, L. B., & Chapman, A., R. (2006). The process of empowerment: A model for use in research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5(7), 646-659.
- Freire, P. (1973). *Education for critical consciousness*. New York: Continuum Publishing Company.
- Horsch, H., Muller, G., & Spicher, H. J. (2006). *Hoch begabt-und trotzdem glucklich*. Dusseldorf: Oberstebrink.
- Kane, G. A., Wood, V. A., & Barlow, J. (2007). Parenting programmes: A systematic review and synthesis of qualitative research.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3(6), 784-793.
- Lincoln, N. D., Travers, C., Acker, P., & Wilkinson, A. (2002). The meaning of empowerment: The interdisciplinary etymology of a new management concept.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 4(3), 271-290.
- Marquardt, M. J. (2004). *Optimizing the power of action learning: Solving problems and building leaders in real time*. Palo Alto, CA: Davies-Black Publishing.
- McGill, I., & Beaty, L. (2002). *Action Learning, A Guide for Professional, Management and Educational Development*. London: Kogan Page Limited.
- Miley, K. K., O'Melia M., & Du Boris, D. L. (1995). Strengths, Empowerment and Competence. In K. K. Miley, M. O'Melia, & D. L. Du Boris (Eds.).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An Empowering Approach* (pp. 401-425). Boston, MA: Allyn & Bacon.
- Miley, K. K., O'Melia, K. M., & Du Boris, P. L. (2004).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An empowering Approach* (4th ed.)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 Parsons, R. (1991). Empowerment: Purpose and Practice Principle in Social Work. *Social Work with Groups*, 42(2), 7-21.
- Parsons, R. (1999). Assess helping process and client outcomes in empowerment practice. In W. Shera & L. M. Wells (Eds.), *Empowerment Practice in Social Work* (pp. 390-417). Toronto: Canadian Scholars' Press.
- Rappaport, J. (1985). The power of empowerment language. *Social Policy*, 16(2), 15-21.
- Revans, R. (1978). *ABC of action learning*. London, England: Lemos & Crane.
- Revans, R. (1980). *Action Learning: New Techniques for Management*. London: Blond and Briggs.

- Robinson, H. B., Roedell, W. C., & Jackson, N. E. (1979). Early identification and intervention. In A. H. Passow (Ed.), *The gifted and the talented: Their education and development*. (pp. 138-154). The seventy-eighth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Part 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hrmann, S., & Rphrmann, T. (2005). *Hochbegabte Kind und Jugendliche*. Muenchen, Basel: Ernst Reinhardt verlag.
- Shulz, A. J., Israel, B. A., Zimmerman, M. A., & Checkoway, B. N. (1995). Empowerment as a multi-levels. *Health Education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10, 309-327.
- Sidney, M. M. (2004). 사회적 및 정서적 문제, 미성취, 상담. 영재교육필독서리즈. [문은식, 송의열, 최지영, 송영명, 역]. 서울: 학지사. (원본출간년도: 2004).
- Silverman, L. K. (1997). Family counseling with the gifted. In N. Colangelo & G. A. Davis (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2nd ed, pp. 307-320). Boston: Alley & Bacon.
- Spence, J. (1998). *Practice application brief: Action learning for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Electronic version]. (Developed with funding from the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National Library of Education, U.S. Department of Education.
- Staples, L. H. (1990). Powerful ideas about empowerment. *Social Work*, 17, 29-41.
- Vincent, C. (1996). Parent empowerment? Collective action and inaction in education. *Oxford Review of Education*, 22, 465-482.
- Willimann, A. J., & Holing, H. (2004). *Hochbegabtenberating in der Praxis*. gottingen: Hogrefe.

= Abstract =

A Study on the Empowerment of Parents of Gifted Children Using Action Learning

Sung-Kyung Chu

Dong-A University

This study is purpose of empowerment of Parents of Gifted Children Using Action Learning.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ifted children at home parents worry and stress associated with parenting experience, but directly to the nurturing gifted education is insufficient for parents. Thus, the characteristics of gifted and talented gifted parents who have appropriate training should be conducted.

Second, a gifted parent empowerment by having a parent in child care for the ability to relieve stress and parenting, parents in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the confidence to believe that may be helpful.

Third, parents of gifted children for strengthening the application of action learning approach is to derive a real problem with gift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to seek a solution for the child care that can enhance the capabilities will be presented.

Key Words: Parents of gifted children, Parenting stress, Empowerment, Action learning

| |
|------------------------|
| 1차 원고접수: 2013년 11월 30일 |
| 수정원고접수: 2013년 12월 27일 |
| 최종게재결정: 2013년 12월 27일 |